

# 벼 직파재배, 일손 부족·농가 소득 해결사

전남 2238농가 6361ha로 확대  
지난해 5822ha보다 9.3% 증가  
2019년 농가소득 39억원 기여  
3년 간 생산비 90억 절감 효과



지난해 7월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한 밭에서 열린 '벼 직파재배 중간 평가회'.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가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올해 전남지역 벼 직파재배 면적을 6300여 ha로 확대한다.

26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벼 직파재배에는 전남 2238 농가가 6361.8ha 규모로 참여한다. 농가 한 곳당 평균 2.8ha를 직파재배로 경작하는 셈이다.

전남 직파재배 면적은 지난해 5822ha보다 9.3%(540ha)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규모 1만1041.1ha의 57.6%를 차지한다.

벼 직파재배는 육묘와 이앙을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벼 재배방법이다.

그동안 직파재배는 잡초성 벼 방제가 어렵고 기계 이앙에 대한 관리가 복잡하다는 한계 때문에 확대가 부진했다. 하지만 기술력의 발전으로 생산비가 ha당 73만5000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력은 ha당 육묘이앙 대비 23%(21.8시간) 절감되고, 쌀 생산비는 ha당 10%(75만3000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나주시 동강면 북룡들밭 단지(5ha) 등 30ha를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대상 면적을 점차 확대해왔다.

2015년에는 참여농가가 장흥 안양, 강진, 녹동, 팔영, 나주 공산, 마한, 봉황, 보

성, 회천, 영암 군서, 완도, 장성 백양사, 함평 나비골, 능주 등 15개 조합으로 늘었다. 전남 참여 면적과 농가는 ▲2015년 570ha(286농가) ▲2016년 1477ha(507농가) ▲2017년 2904ha(978농가) ▲2018년 3932ha(1310농가) 등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는 목표(5000ha)를 웃도는 5822ha(1783농가)에서 직파재배했다. 올해 전남 직파재배 면적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4년(30ha)에 비해 700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5000ha가 넘는 면적을 대상으로 직파재배를 도입하면서 기여한 농가소득을 39억600만원으로 집계했다.

전남 농가는 직파재배에 동참하면서 2017년 21억원, 2018년 30억원, 2019년 39억원 등 최근 3년 동안 90억원 상당 생산비를 절감했다.

최근 무안 등 전남 곳곳에서는 드론(무인 항공기)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가 도입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는 일반적인 벼농사에 필요한 모판에서 모를 기르는 육묘 과정이 없고 경운과 정지작업을 한 뒤에 볍씨를 눈에 바로 뿌려서 모를 기르는 것으로, 초기 제초제를 주는 과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드론 직파재배는 생산비가 ha당 최고 120만원 절감되고 작업 시간이 6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전남본부는 직파재배 사업 7년차를 맞아 올해 나주 동강농협과 직파재배 대단위 특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농협은 이 사업을 통해 농작업과 공동방제를 할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직파용 균평기·파종기 등 필요한 농기계를 맞춤 지원한다.

올해 직파재배 규모는 전남이 가장 많고 전북이 1631ha(544농가)로 14.8%를

차지하며 2위에 들었다. 경남 1128ha(1170농가), 충남, 909ha(498농가), 경북 535ha(362농가), 경기 159.3ha(129농가), 부산 135ha(48농가), 충북 84ha(72농가), 강원 45ha(32농가), 광주 40ha(30농가), 울산 36.8ha(38농가), 제주 5ha(10농가), 대구 3ha(1농가), 인천 2.2ha(4농가)가 뒤를 따랐다.

직파재배에 참여한 전남지역 60개 농협 가운데 군서농협(510ha), 팔영·동강·삼향(각 500ha), 현산(400ha), 영암남주(350ha), 도초(300ha), 관산(250ha), 계곡(220ha), 무안(210ha), 월출산(200ha), 삼호(200ha) 등 12개 조합이 전남 직파재배 면적의 65.1%(4140ha)를 차지한다.

올해는 육과농협(20ha)과 금정·노화·용산·문내·북평·화원농협이 각 1ha씩 직파재배에 새롭게 참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aT, 말레이시아 유통업체와 공동 마케팅

수교 60주년 맞아 연합회 발족

기준 6100만달러(7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한국-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현지 유통업체와 농식품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23일 한국농식품 바이어·유통업체연합회(MKBA) 발족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aT와 연합회는 현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를 말레이시아 현지 유명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바이어들로 구성했다.

발족식 행사에는 주말레이시아 이치범 대표를 비롯, 현지 유명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이세탈'과 '쇼피' 등의 주요 바이어와 'KMT 자야', '유로아틀란틱' 등 현지 수입 바이어 13개사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달 말

특히 고추장 수출액은 2배, 김치는 1.5배 가량 뛰었다. aT 측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말레이시아에서 온라인 마켓과 배달업 시장을 적극 공략한 점이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aT와 연합회는 현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를 말레이시아 현지 유명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바이어들로 구성했다.

앞으로 aT와 연합회는 현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를 말레이시아 현지 유명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바이어들로 구성했다. 발족식 행사에는 주말레이시아 이치범 대표를 비롯, 현지 유명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이세탈'과 '쇼피' 등의 주요 바이어와 'KMT 자야', '유로아틀란틱' 등 현지 수입 바이어 13개사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달 말

## 농업용수 수질자동측정망 360곳 구축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 9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사 직원이 저수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 그린뉴딜 425억 투입

분·오폐수 유입'이 절반 가까이(46%)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2022년까지 425억원 예산을 들여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경제 부흥) 사업의 하나로 선정됐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로 옮겨 분석하는 기존 수질조사와 달리 현장에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측정된 내용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저수지 수질의 실시간 관측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공사 측은 기대했다.

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해 1990년부터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며 저수지 975개소에 대한 분기별 측정과 그 결과를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지속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저수지 수질오염사고는 2015년 11건에서 2019년에는 4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수질오염사고 가운데 '유류 오염'과 '축

오염사고 발생 때 오염원 확인과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사는 올해 저수지 30개소에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는 총 90개소 360개 지점으로 설치를 확대한다.

설치대상은 국가 관리 주수 저수지 중 수질오염사고 발생 때 피해 심각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설치 규모가 큰 저수지부터 시작한다.

공사는 이와 함께 수질관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분석을 통해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수질관리플랫폼을 구축해 202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농촌용수 수질자동측정망 사업을 시작으로 디지털 기술을 수질관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안전한 친환경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생산농가 직접 수급 관리...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

전체 경작지 대비 양파 72%·마늘 68% 회원 신청

노지 채소류로는 처음으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지난 24일 공식 출범했다. 오는 9월부터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양파·마늘의 자율 수급조절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24일 이들 동안 벌인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가결,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한 자조금이다.

양파와 마늘 의 의무자조금 품목으로는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등 12개가 있다.

양파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은 118명, 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됐다.

양파 의무자조금의 경우 전남지역 대의원에는 무안 12명, 신안 11명, 함평 9명, 해남 4명, 고흥 4명, 영광 3명, 장흥 2명, 기타 2명 등 4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 경남 25명, 경북 15명, 전북 13명, 제주 7명, 충북 6명, 기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마늘 부문 전남지역 대의원은 고흥 10명, 신안 10명, 해남 7명, 무안 6명, 기타 4명 등 37명이다.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전체 대의원 119명 가운데 전남이 가장 많고, 경남(25명), 경북(22명), 충남(16명), 제주(11명), 대구(3명), 전북·충북(각 2명), 기타(1명)가 뒤를 이었다.

해당 의무자조금은 지난해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합의를 거쳐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기준 전체 재배면적 기준 양파 72.0%(농업인 2만784명), 마늘 67.7%(농업인 3만5258명)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가 회원가입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23~24일 진행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의 지원금 등으로 이뤄진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앞으로 개편될 대의원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인승차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